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近代法學教育百周年
1895-1995



2006 **vol.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Vol. 6

SNU Law Magazine

正義

정의의 종



02 발간사

정의의 종 제6호를 내면서 _ 학장 인사말

03 후원소식

2005, 2006년 후원인명단
법대 9기 윤주원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법대 14회 동기회 발전기금 전달식

08 특집

1. 신임학장단 소개
2. 신임교수 소개 _ 이철수 교수 인터뷰
3. 외국인초빙교수 소개 _ 서사영 교수
4. 서울대 법대 BK2기 발족
5. 현판식

26 법대소식

2006 서울법대 동창회
법과대학 여자동창회 신입생환영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취임식

29 학술활동

- 국제학술활동
 - 서울대-동경대 학술교류 협정식
 - 대만 국회 법제국방한단 방문
 - Yale대 로스쿨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 개소기념 국제학술대회
- 국내학술활동
 - 노동법연구회 학술회의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회의
 -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학술회의
 - 통신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필수설비 법리 적용에 대한 연구 워크숍
 - 한국민사법학회 창립5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교수 집담회 및 법과문화 포럼
-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1기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46 학생활동

Jessup 소식
대동제

52 동문인터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56 교수동정

60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SNU Law Magazine 제6호

발행인 _ 호문혁 편집 _ 정종섭, 이원우, 김재환 발행일 _ 2006년 6월

발행처 _ 151-74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신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법과대학\)](http://law.snu.ac.kr(법과대학)) [http://snu.lawfund.or.kr\(법학발전재단\)](http://snu.lawfund.or.kr(법학발전재단)) [http://jus.snu.ac.kr/~lawnews\(법과대학 뉴스레터\)](http://jus.snu.ac.kr/~lawnews(법과대학 뉴스레터))

발간사

“정의의 종 6호를 내면서”

앞으로도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법과대학으로서도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에게 보답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서 한여름의 더위에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옛 그제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지원해 주시는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반년 사이에 우리 서울대에는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총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후임 총장을 선거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 총장이 우리 법대와 얼마나 호흡을 같이 하여 법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지가 우리의 커다란 관심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제2차 BK사업 연구단 선정이 있었는데 우리 법과대학 교수 전원이 구성하여 신청한 사업단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차 때의 경험을 살려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우리 법대를 적극 후원하여 주신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에 법대 제23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는 제가 학장이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 조만간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면 그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도서관 증축공사가 시작되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법과대학으로서도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에게 보답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서 한여름의 더위에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20 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호 문 혁(胡 文 赫)



2005년 후원인 명단

날짜	기부금영수증	기부자		기부액	비고
		성명	주소		
01. 07	338	황우석		691,200	
01. 17	339	이창희		3,900,000	
01. 17	334	정성진		500,000	
03. 02	340	최고지도자 1기 수료생 일동		50,000,000	
03. 11	341	조재건		500,000	
03. 09	342	김&장 법률사무소		3,000,000	
03. 11	343	남유선		2,000,000	
03. 15	344	김대희		5,000,000	
03. 16	345	법무법인 세종		3,000,000	
03. 22	346	법무법인 광장		3,000,000	
03. 28	347	법무법인 세종		30,000,000	
04. 28	348	제29회 동문회(35명)		50,000,000	
05. 02	349	구본세		30,000	
05. 11	350	황우석		700,000	
05. 30	351	구본세		30,000	
06. 10	352	이지신		10,000,000	
06. 13	353	정성진		500,000	
06. 13	354	김철수		2,000,000	
06. 13	355	정해창		1,000,000	
06. 13	356	박경호		1,000,000	
06. 14	357	김&장 법률사무소		63,000,000	
06. 15	358	KT하이텔장학		1,000,000	
6. 20	359	한민(김&장 법률사무소)		10,000,000	
06. 30	361	구본세		30,000	
07. 01	362	원우현		1,200,000	
07. 01	363	이흥훈		1,000,000	
06. 23	364	국제타발		776,400	
07. 04	365	이병철		10,000,000	
07. 18	366	정위수		2,000,000	
08. 30	367	박철		1,000,000	
08. 01	368	구본세		30,000	
08. 30	369	구본세		30,000	
09. 14	370	ALP2기 자치회		70,000,000	
09. 15	371	오연균		1,000,000	
08. 12	372	이용훈		1,000,000	
08. 30	373	박영준		3,000,000	
09. 30	374	구본세		30,000	
10. 04	375	법대 13회 졸업생 일동		10,000,000	
10. 06	376	서울대법과대(법대 최고지도자과정)		130,000,000	
10. 10	377	법대 제19회 동창회		30,000,000	
10. 14	378	황우석		700,000	
10. 30	379	구본세		30,000	
11. 04	380	최성우외 183명('81학번 39회 졸업20주년 기부금)		70,000,000	
11. 15	381	故 서원우 교수		5,000,000	
11. 30	382	구본세		30,000	
12. 16	383	홍창식(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수료생 일동)		7,000,000	
12. 16	384	법무법인 광장		500,000	
12. 23	385	박윤해		100,000	
12. 23	386	남기춘		1,000,000	
12. 23	387	홍창식		1,200,000	
12. 27	388	윤진수		1,000,000	
12. 28	389	정해창		1,000,000	
		합계		630,773,173	
				원금 : 589,507,600 이자 : 41,265,573	



2006년 후원인 명단

날짜	기부금영수증	기부자		기부액	비고
		성명	주소		
06. 1. 3.	1	권동환	권동환	300,000	
01. 16.	2		이광렬 · 이문호 법률사무소	10,000,000	
01. 03.	3		㈜유창기업	500,000	
01. 10.	4	오승철		200,000	
01. 26.	5	조무제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00,000	
01. 31.	6	이희식		1,000,000	
02. 02.	7	강영재	02학번(송실대 강경근 교수의 자)	1,000,000	
02. 21	8	박병호	박병호(명예교수)	5,000,000	
02. 22	9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3기 수료생	70,000,000	
03. 14	10		법무법인 세종	3,000,000	
03. 13	11		법무법인 태평양	50,000,000	
03. 16	12		김&장 법률사무소	3,000,000	
03. 17	13		힐라코리아	3,000,000	
03. 22	14		ALP 총동문회	10,000,000	
03. 20	15	이태운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10,000,000	
03. 23	16		법무법인 화우	50,000,000	
03. 28	17		㈜한솔	1,000,000	
03. 31	18		법무법인 광장	3,000,000	
04. 11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운영비 이월금	46,825,915	
04. 12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운영비 지출 잔액 이월금	102,596,340	
04. 12	19		법무법인 윤촌	150,000,000	
04. 19	20		법무법인 광장	50,000,000	
04. 20	21		김&장 법률사무소	200,000,000	
05. 09	22	구본민	구성훈 06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2,000,000	
05. 09	23	박정훈	박소영 03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2,000,000	
05. 09	24	최완주	최윤서 04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2,000,000	
05. 09	25	강재철	강연수 06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10,000,000	
05. 09	26	김명수	김한철 06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2,000,000	
05. 09	27	박상일	박경준 06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10,000,000	
05. 09	28	윤남근	윤호열 06학번 父 (77학번 법대학생아버지모임)	2,000,000	
06. 07	29		법과대학 14회 동기회 회원 일동	20,000,000	
06. 14		윤주원		100,000,000	



법대 9기 윤주원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지난 14일 오후 1시 본교 9기 윤주원 동문은 서초동 자택에서 금 일억원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에 기부하는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윤주원 동문은 현재 덕양산업 주식회사 회장직에 있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있는 상태이다. 본교 법대를 졸업한 후 UCLA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수석부사장과 현대종합상사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서울법대 14회 동기회 발전기금 전달식



2006년 6월 5일 서울법대 14회 동기회(회장 김진탁) 회원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회원들은 거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면서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여 모교에 대한 애정을 한껏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법대 14회 동기회는 회원들의 산문, 시, 논집 등을 모은 서울대 법대 입학 50주년 기념문집 “駱山の 노래”(2006년 5월 11일 발행, 도서출판 삶과꿈)를 발간하여 각 회원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삶의 일면을 표현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었다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특집

1. 신임학장단 소개
2. 신임교수 소개
3.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4. 서울대법대 BK2기 발족
5. 현판식

正義

01

특집 신임학장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본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과정을 거친 후, 독일 Freiburg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8년, 1980~86년에 영남대학교 법정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본교에는 1986년에 부임하였으며 올해 6월 1일부터는 법과대학 학장의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선거에서 차기 학장으로 당선되고,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집무에 여념이 없는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과 6월 7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 :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독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장 :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대한 안팎의 기대는 상당합니다.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커다란 임무를 맡은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 법과대학 또는 현재 법학교육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장 : 우선 교내 문제에 있어서는 법과대학의 도서관 증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에 있어서는 먼저 사법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에 있어서 학문과 실무 양자의 발전을 위해서는 Legal Mind, 즉 법적사고를 잘 갖춘 법률가가 필요하고, 법과대학은 그러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토양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법시험은 일정양의 기술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 거치게 되는 사법연수원의 과정역시 단순기술적인 것을 익히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로서 현실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지식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능력의 하나 일뿐, 그것에만 치중하여 정말로 중요한 법적사고형성의 노력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법학교육을 원만하게 공부하고 수료하여 올바른 Legal Mind를 갖춘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출제와 평가에 있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법시험 준비에 있어서 사교육 치중의 실태의 근원이 되는, 사법시험을 조선의 과거와 같이 출세의 관문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사고방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별 법과목을 익혔다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각 과목의 내용을 종합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과의 연관이 필요하겠지요.

둘째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외국법과 외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대학수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교수의 초빙하여 수업을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응해서 다가올 미래에 필수적인 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합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장 : 첫째로 법밖에 모르는 무지한 지식인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법시험만을 위한 편협한 공부를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무식한 법률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 평소 세상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고 무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01

특집

신임교무부학장 - 정종섭 교수



기자: 비번인 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부학자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종섭 교수 (이하 정): 우리 법과대학은 지금 전환기이며 도약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학장단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열심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교무부학자로서의 고충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정: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시험에 필요한 과목만 듣고 노는 장소'가 아닌 '공부하는 장소'로서의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부학자의 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또 2년간의 임기동안 어떤 점에 주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정: 교무행정은 학교의 살림을 사는 일이며, 학생행정과 대외교류, 로스쿨전환과 관련한 예산의 확보 등 일의 핵심센터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크게 중점을 둘 곳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학은 놀이터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하며, 연구든 강의든 진지한 학문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

며 학교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의 현실적실성과 효율성도 강화해야하며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년내에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우리 학장단의 임기 중에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개편, 교원의 충원과 임용 등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올해 후반부에 로스쿨에 걸맞는 법학도서관의 증축에 대한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착수 중인 법학도서관의 증축은 아직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내부공간의 구성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서관서의 마련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모두 재정문제로 앞으로 재원모금운동에 힘쓰려고 합니다.

기자: 그러한 시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 됩니까?

정: 우리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전체소요 예산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건물짓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혹은 로스쿨에 걸맞는 외부모습과 학생들과 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시설을 적절히 제공해주기 위한 내부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50%의 재원은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대략 20~3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로스쿨개편문제와 재정모금운동에 힘쓰는 한편, 대학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낭만적인 놀이터'가 아닌 '학문의 장소'로서의 대학이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두번씩 유명인사나 선배들 중에서 자기성취를 이룬 분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제공하면서 강연이나 토론의 자리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야에서 각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대학이 사회개혁의 기능을 담당하고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 태제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았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낭만적인 놀이터로서의 대학이 아닌 대학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을 탐구하고 앞으로의 직업능력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대학 때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대학도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 자기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교무부학장의 능력이 닿는 대로 돕고 싶습니다.

신임부학장 소개

01

특집

신임학생부학장 _ 이원우 교수

기자: 서울대학교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부학장이기는 보직을 맡게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원우 교수(이하 이): 제 은사이신 슈토버(Stober)교수께서 '행정보직수행은 대학의 가치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학구성원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 보직을 맡는 분들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순번에 온 것이지요. 연구와 강의 이외에 행정 보직을 맡는다는 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학생부학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학생부학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학생부학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순수하고 발전적인 고민들이 대학발전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대학행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학교행정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학생부학장은 필연적으로 학생들과 많은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저는 원래 학생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학기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과 함께 'symposium'을 개최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 '함께 마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할 수 없는 대화들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다가갈 수 있지요. 아무튼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학생회장단과 만나고, 곧이어 동아리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도 좀더 능동적으로 교수님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자: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주제를 두어 해결하고 싶으신 학생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이: 현재 법대 내에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생각보다는 원활치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 사이에 괴리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문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FIDES'와 '현실과 철학' 같은 역사 깊은 학술동아리들이 하나둘씩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되다보니 학생들의 사회문제 의식은 낮아진 반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은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동아리 자체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은 대학구성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생부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자: 법대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등한시하고 사법시험 준비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학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 첫째, 사법시험을 위해서라도 학교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제 생각입니다. 수년전에 모 사립대학에서 출석률, 학교성적, 사법시험 합격시기, 합격성적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학교출석률이 좋은 학생이 학교성적도 좋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에도 빨리 합격하고 성적도 상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사실들이 확대·과장되어 알려져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통계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학교공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원리와 철학을 터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제경향과 시험문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가 되면 지금의 학설·판례는 물론 실정법규정도 바뀌게 됩니다. 원리와 철학을 이해하는 자라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생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지식을 함양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지식을 전수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자: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데, 어떻게 개선노력을 계획이신지요?

이: 시설문제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강의실과 도서관입니다. 특히 강의실 같은 경우, 제대로 된 대형 강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몇몇 강의실 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국내 사립대학과 비교하더라도 강의실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소수가 수강하는 일부 강의 이외에는 모두 말발굽형의 계단식 강의실에서 강의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멀티미디어 시설도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위 다른 대학에서 강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법대 학생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 학생들은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학문과 접하여야 하고, 우리사회의 어둡고 아픈 측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비전을 꿈꿔야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집은 건전한 정신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 빛나는 법입니다.

02

특집 신임교수 _ 이철수 교수



기자 : 교수님이 걸어오신 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수 교수(이하 이) : 제가 법학부에 입학했을 때가 70년대 후반이니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학사졸업 후 법과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차례로 거쳤습니다. 박사과정 중간에 잠시 독일 Frankfurt 대학 내 노동법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도 했고, 박사과정 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년 정도 연구위원으로 일했죠. 95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노동법 제 발전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현재 한국 노동법학회나 한국 노사관계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됐나요?

기자 : 모교에 돌아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 : 제가 학교를 다닌 7, 80년대와 비교해보면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 캠퍼스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가장 큰 화두가 역시 '민주화' 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개별적인 성취동기를 좀 더 중요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우세한 것 같아요.

기자 : 학생 시절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 지금 백주년 기념관 앞에 있는 정의의 종을 보면 그 당시의 기억들이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1980년 '서울의 봄' 시절에 법대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학생처장이셨던 이수성 선생님께 '정의의 종'을 법대에 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전까지는 '정의의 종'이 학생들의 저항의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도서관 구석에 일종의 박제된 상태로 내팽겨쳐 있었죠. 이수성 선생님께서도 학생회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 주셔서 정의의 종이 현재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원 때의 노동법연구회 활동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1980년 초반부터 대학원생들과 사법연수원생들과 함께 비밀리에 학습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정치적·사

회적 혼란기였고 민주화에 대한 억압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동법, 노동인권은 금기시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각국의 노동운동사와 일본의 노동법 이론을 중심으로 매주 한 번씩 4년 여간 다들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 2기, 3기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 형성된 인적자원이 현재 노동법학계나 실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 학문으로서 노동법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 현실과 이론의 접목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라는 점이 큰 매력이지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따른 동태적 역학관계를 추적해 가야하는 분야이고,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와 인권문제 등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실천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그 나라 민주화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다루는 노동법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죠.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노동법의 관심은 개별적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노사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노동법은 1400만 근로자들의 애환을 실존적 차원에서 다루는 법이고 이는 세계화가 진전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기자 : 정부단체에서 실무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문제 해결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아직 우리 노사 양쪽 모두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아직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대투쟁과 97년의 노동법 개정을 거치면서 노동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인 노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문제의 해결은 상생의 조건을 찾아 나서는 실천적·규범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나 인식주체들의 품성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노사문제의 해법은 궁극적으로 교육문제와 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서울 법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 '전문우인(Fachidio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뇌는 명석하지만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지요.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 '법전 속의 법'에만 매몰되면 이러한 '전문우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법대 학생들은 훌륭한 재원으로 선발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민의식의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여러 인문과학적 소양을 풍부히 쌓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입니다. 넓고 너그러운 안목을 가지고 크고 긴 그림을 그려가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03

특집

외국인초빙교수 소개 _ 서사영 교수



서사영 교수는 1948년생이며 화동정법대학교 경제법 교수이자 동 대학교 대학원 경쟁법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미국 보스턴 대학과 일본 동경 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경제법교정, 경제법통론, 현대경제법, 경쟁법론 등을 비롯하여 현대기업관리, 시장경제대전장 등 다양한 저서와 중국반독점법연구, 유럽연합경쟁법현대화와 중국에 대한 시사, 일본 반독점법의 수용(토착화) 과정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기자 :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사영 교수(이하 서) : 괜찮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자 :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 : 저는 화동정법대학에서 경제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화동정법대학원의 경쟁법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학부시절에는 상해제정대학 경제과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고,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보스턴 대학과 일본 동경대 법대에 방문교수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기자 : 본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 : 2002년에 북경에서 열린 경제법 국제 학술대회에서 권오승 교수와 알게 된 이래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법은 미국의 경제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문화, 역사와 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권오승 교수와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메일을 주고받는 중 교류를 계속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 본교에서 강의할 것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강의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실텐데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시다 보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서 :사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경지식이 풍부하고, 수업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번 학기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 강의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법은 미국의 경제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문화, 역사와 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학생들이 토론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이 매우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인데다 행정적인 절차가 지체되어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수강하는 한국 학생의 수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이번 학기에 본교 권오승 교수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서 :네,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자신의 소신을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빠져서 권교수를 자주 볼 수 없게 된 점은 아쉽지만, 매우 축하한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 : 감사합니다.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단 발족 및 추진현황

04

특집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단 발족 및 추진현황

『제1단계

두뇌한국 21(이하 BK 21이라 한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과정 중인 2006년 1월 5일 교육부의 제2단계 BK 21 사업의 공고가 있었다. 2006년 1월 1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 BK 사업설명회에 전 오승한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BK사업신청서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본 연구단은 성낙인 학장 및 박정훈 부학장, 한인섭교수 주도 아래 정인섭교수, 김재형교수, 정궁식교수, 이근관교수, 송옥렬교수, 이원우교수, 김형석교수 외 적극적인 협조로 BK사업신청서 작업에 착수하였고, 착수이후에도 수차례 회의 및 밤샘 근무작업이 진행되었다.

효율적인 신청서 작성진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분담영역을 정하고 각자 맡은 영역을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작업에 착수하였다.

2006년 1월 25일 개최한 BK21 사업신청서 작성을 위한 관련회의에서는 센터이름과 센터소속교수를 정하고 변경가능하도록 하고 센터명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정한 센터명과 소속교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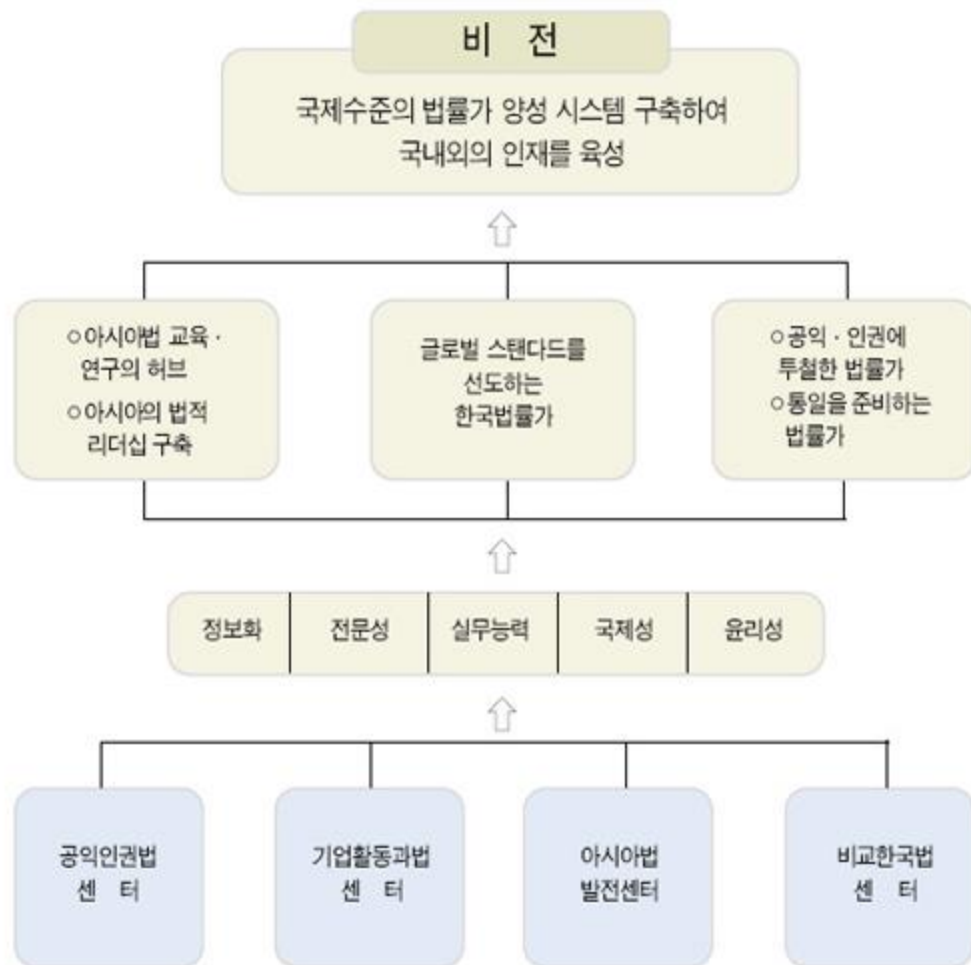
공익인권법센터: 신동운, 이홍재, 안정환, 정인섭, 한인섭, 김도균, 조국, 양현아
 아시아법발전센터: 최종고, 권오승, 정궁식, 조홍식
 통일법센터: 성낙인, 이상면, 정종섭, 박정훈, 이근관, 송석윤,
 기업금융통상법센터: 김건식, 남효순, 이창희, 장승화, 김재형, 박상근, 송옥렬,
 비교법센터: 호문혁, 최병조, 양창수, 윤진수, 이용식, 최봉경, 오정후, 이우영, 김형석
 과학기술법센터: 박은정, 정상조, 구대환, 이원우 [모두 무순]

2006년 2월 1일 12:00~14:30 정인섭교수, 한인섭교수, 정궁식교수, 이근관교수, 이원우교수, 김재형교수, 김형석교수, 이창섭박사, 오승한박사가 참석한 2단계 BK신청서 작성 관련 회의에서 신청서 작성에서 개별적 분담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서의 골격이 갖추어졌고, 그 체계는 신청분야,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 및 구성, 부문별 주요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신청분야에서는 사업분야의 중요성과 인력수요, 대학의 특성화관련 내용을 작성하였고, 부문별주요사업계획에서는 교육부문, 연구부문, 대학원특성화부문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과정구성 및 운영계획, 참여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및 지원계획, 대학원생논문게재, 실적, 대학원교육의 국제화실적 및 계획을, 연구부문에서는 최근 5년간 참여교수1인당 연구비수주실적 및 계획을, 대학원특성화부문에서는 대학의 물적자원 투자계획,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 실적과 체제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계획, 사업단내 경쟁체제구축 및 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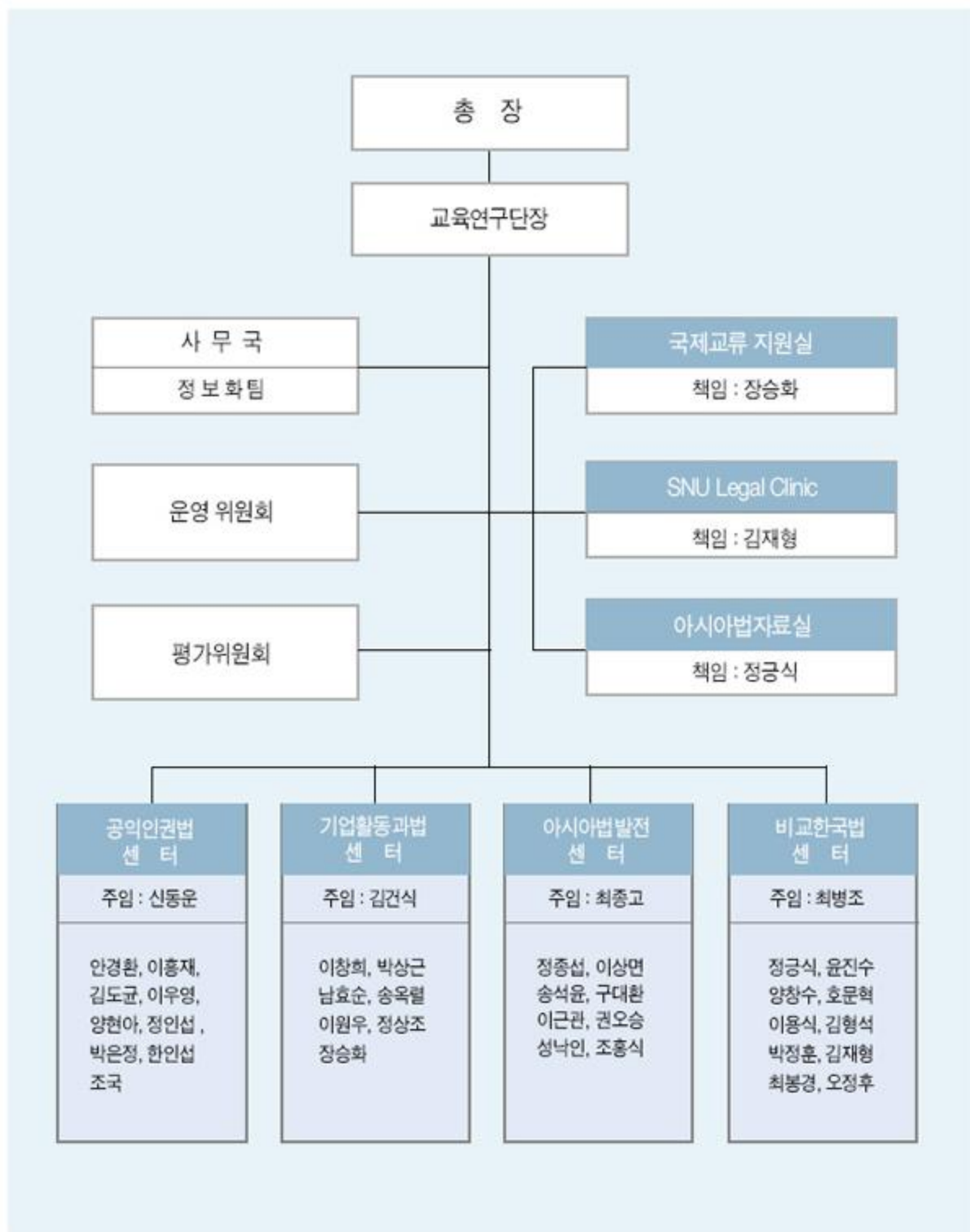
자체평가 시스템 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 작성하였다.

2006년 2월 6일 14:00시 2단계 BK신청서 작성 관련 회의를 14동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고, 2006년 2월 8일 12시 신청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교수회의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17동 511호에서 2단계 BK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종합검토를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수들의 밤샘작업과 조교 등의 자료수집, 정리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12일 사업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2006년 2월 13일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지원팀에 제2단계 BK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사업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동 2006년 3월 17일 성낙인단장, 김재형교수, 정궁식교수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BK 21 인문사회분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고, 사업단 신청 후에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및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26일,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사업단이 인문사회분야에서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5월 9일 2단계 BK 21선정사업단 대학원생현황 및 국고지원금 집행세부내역을 제출하였고 2006년 6월 2일 BK21 참여교수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사업단을 진행할 청사진을 작성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단 발족 및 추진현황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조직현황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단장	간사: 사무국장
위 원 : 신동운, 김건식, 최종고, 최병조(이상 센터 주임교수), 김재형(간사교수) 박정훈(전 교무부학장), 정인섭(법학연구소 소장)	

2. 교육·연구 센터

공익인권법 센터(총 10명)	
주임교수: 신동운	
공익법 연구팀: 안경환(팀장), 김도균, 양현아(3명)	간사교수: 양현아
인권법 연구팀: 정인섭(팀장), 신동운, 박은정, 조국(4명)	
제도개선 연구팀: 한인섭(팀장), 이홍재, 이우영(3명)	
기업활동과 법 센터(8명)	
주임교수: 김건식	간사교수: 이원우
기업법 연구팀: 이창희(팀장), 김건식, 박상근(3명)	
금융법 연구팀: 남효순(팀장), 송옥렬, 이원우(3명)	
통상법 연구팀: 장승화(팀장), 정상조(2명)	
아시아법발전 센터(9명)	
주임교수: 최종고	간사교수: 이근관
중국법 연구팀: 정종섭(팀장), 최종고, 이상면(3명)	
동남아법 연구팀: 송석운(팀장), 구대환, 이근관(3명)	
법제정비지원팀: 권오승(팀장), 성낙인, 조홍식(3명)	
비교한국법 센터(11명)	
주임교수: 최병조	간사교수: 오정후
전통법 연구팀: 정금식(팀장), 최병조, 윤진수(3명)	
비교법 연구팀: 양창수(팀장), 호문혁, 이용식, 김형석(4명)	
통일법 연구팀: 박정훈(팀장), 김재형, 최봉경, 오정후(4명)	

동 6월초 국고지원금 수령 예정에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과 동시에 사업진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05

특집 현판식

301호 강의실 현판 제막식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30분 법과대학 15동 301호 앞에서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리모델링된 301호 강의실의 현판 제막식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법과대학은 법학발전재단의 발족과 법대동문들의 후원을 통해 법대외벽의 교체, 강의실의 내부수리와 강의시설의 확충, 1층 로비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조영래 홀 개관 등 각종 낙후시설들을 보수공사하였다. 그 중 301호 강

의실은 법무법인 광장의 도움으로 내부 수리 및 강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정식으로 현판식을 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설립되었으며,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Lee&Ko)와 법무법인 광장(Park&Partners)이 합병하여 지금까지 법무법인 광장(Lee&K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병법인은 국제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Lee&Ko라는 영문명칭을 유지하는 한편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양 법무법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업무분야는 기업법무 및 국제거래분야, 금융분야, 소송 및 중재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등 네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 북경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301호 강의실
현판 제막식

308호 모의법정 올촌

308호 모의법정 올촌



지난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2시에 법대 15동 308호 앞에서 모의법정의 개관식이 있었다. 이번 모의법정은 로스쿨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기존 세미나실 등의 자리에 법무법인 올촌의 기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공사는 2년전부터 법학발전재단의 발족에 힘입은 법대동문들의 기금을 통해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유민홀, 조영래홀 개관, 강의실 환경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모의법정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따라서 정 중앙에 판사석 좌우에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있으며 판사석 맞은편에 피고인석과 그 뒤로 방청석이 있다. 피고인석을 변호인석쪽으로 옮겨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대등한 지위를 지향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일단 현재의 모습을 재현한 취지를 보아 현모습 그대로 두게 되었다고 한다. 판사석은 합의부 판사자리와 예비판사의 자리까지 합쳐서 네자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방청석의 경우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책상이 달린 의자로 설치되어 있다.

법무법인 올촌은 1992년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이창록 법률사무소'라는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1997년에 현재의 법무법인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이창록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올촌은 기업 법무 분야, 금융분야, 송무분야, 조세분야 등 네 분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이닉스의 엘지반도체 인수, SK텔레콤의 해외교환사채 발행, 국민은행의 로또복권 사건 등을 자문했었다. 최근에는 올촌은 국내 다른 로펌들을 제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의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어 샤넬, 구찌, 에르메스, 버버리, 아디다스 등 세계 유명 브랜드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 자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401호 태평양 현판식



지난 4월 3일 월요일 3시에 법대 15동 401호 앞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리모델링된 "태평양" 강의실(구 401호)의 현판 제막식이 있었다.

지난 2년간 법과대학은 법학발전재단의 발족에 힘입어 15동내의 각종 낙후시설들을 보수공사해왔고, 작년에는 15동 외벽을 리모델링했다. 그 결과 1층 유민홀 개관, 엘리베이터 설치, 강의실 내부 개선, 조영래 홀 개관 등 15동 안팎의 낙후된 시설들을 많이 개선했다.

그 중에서 401호 강의실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으로 내부수리 및 강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Bae, Kim & Lee)은 1980년 김인섭 변호사가 개소하여 1995년에 '태평양'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태평양은 외국기업의 사건수임 등으로 성장해온 국내 다른 대형로펌과는 달리 송무 등 국내 법무서비스를 하다가 국제 법무서비스로까지 업무를 확장시킨 자생적인 토종 로펌이다. 현재 일본 동경과 중국 북경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최근 국내최초로 IT융합지원팀도 신설했다.

401호
태평양 현판식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법대소식

1. 2006년 서울법대동창회
2. 법과대학 여자동창회 신입생환영회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취임식

正義



2006년 서울법대동창회



2006년 5월 16일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서울법대동창회의 2006년도 모임이 있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5시 반에 있었던 전체이사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 심의의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이 논의되었다.

이어지는 정기총회는 6시 반에 시작되었고 14회 서울법대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된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홍재선(경성법전 10회), 변호사 이상혁(서울법대 12회), 전 대법원장 최종영(서울법대 15회), 서울법대 교수 송상현(서울법대 17회)에게 상패가 전달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모교에 대한 동창회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서울법대 역시 학부 폐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교수 임용, 학생 수 조정 등의 변화를 맞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정기총회의 안건으로는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보고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정기총회의 2부는 동문장기자랑과 경품추첨으로 이루어져 서울법대 동문들이 오랜만에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고 변함없는 우애와 모교에 대한 관심을 약속하였다.



법과대학 여자동창회 신입생환영회

지난 5월 3일(수)에 동원관 3층에서 법과대학 여자동창회의 06학번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여자동창회 졸업생들이 새로 입학한 여학생들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찬과 함께 진행되었다.

여자동창회장 박영희씨(19회)는 환영사에서 참석한 신입생들을 반기며 올해부터 여자동창회가 회원간의 긴밀한 연락과 활발한 활동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원 변호사(18회)는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참가하게 되는 여러 동창회 가운데 여자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여학생의 숫자와 달라진 환경에 대한 소감을 표했다.

이어서 이근관 당시 법과대학 학생부학과장과 박정훈 법과대학 학장대행이 축사를 전했다. 박정훈 학장대행은 현재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가운데 법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사법



고시와 이후의 법조경력에 있어서도 여성의 진출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장차 여학생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작년보다 늘어난 30여명 가량의 신입생이 참석했으며 각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취임식

2006년 6월 7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2대 학장 이임식 및 제23대 학장 취임식이 있었다. 이 날의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총동창회 이재우 회장과 ALP(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의 황익만 동창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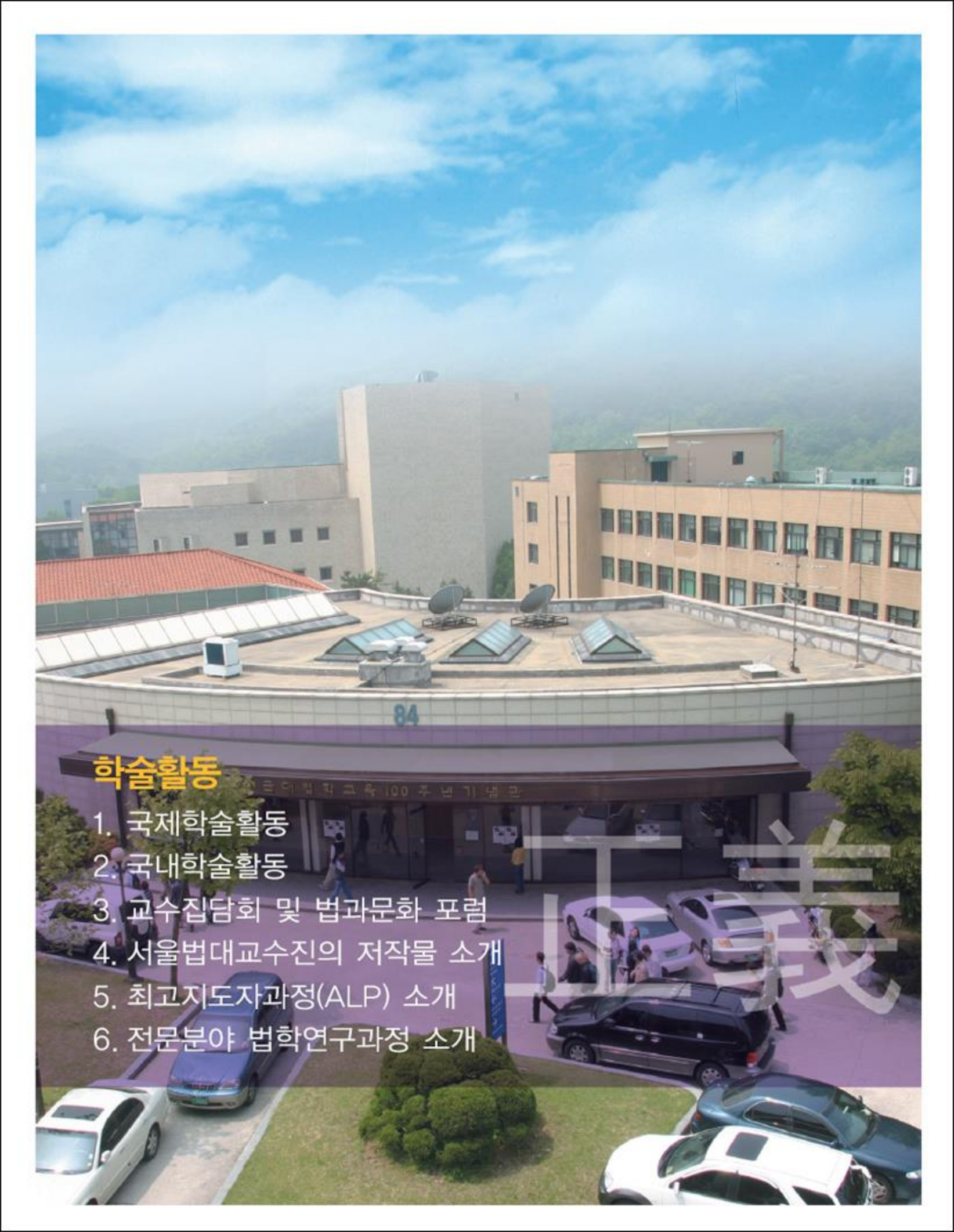
제22대 학장인 성낙인 교수는 이임사에서 임기 중에 있었던 법과대학 수리·개보수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술회했고 ALP과정이 4회에 접어들게 된 것에 대해 상당한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제23대 학장에 취임하게 된 호문혁 교수는 법학교육은 법학 지식과 법적 사고를 기르는 과정인데 아직까지의 한국에서의 법학교육과 연수원제도 등은 그것을 성취하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학자가 되기에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물론 유능한 법률가가 되기에 교육 기간이 부족함은 물론, 개인 대 개인 간, 학교 대 학교 간의 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호문혁 신임 학장은 지금부터의 법조개혁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면서,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이행에 방향을 제시할 것, 비교법적 연구 등을 통한 종합적 사고를 기쁨으로써 법학 교육의 질을 높일 것, 학자가 양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것을 당면 과제로 들었다. 또 호문혁 학장은 동창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학교와 졸업생 간의 상호 관심이 증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1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우 신임 동창회장은 축하에서, 제도가 나빠도 운영하는 사람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으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며, 법과대학의 소명은 좋은 인재를 육성해내는데 있다고 하면서, 동창회가 학교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날의 행사에는 법과대학의 노래동아리 동맥이 축하를 불러 성낙인 전임 학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학장의 취임에 축하하는 의미를 더했다.





학술활동

1. 국제학술활동
2. 국내학술활동
3. 교수집담회 및 법과문화 포럼
4. 서울법대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5.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6.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국제학술활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경대학원법학정치연구과 학술교류협정서 체결기념 학술대회



지난 3월 13일(월), 17동 서암홀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경대학원법학정치연구과의 학술교류협정서 체결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두 대학은 교수 교류와 함께 방문 대학원생 1명에게 매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과 타카하시 히로시 동경대학교 법학부장의 학술교류협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교 학장의 인사,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뉘어 한국 및 일본법의 최근 동향과 발전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형사법 및 민법 분야의 동향과 발전이란 주제로, 호문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형사법과 관련하여 킨 코교쿠 교수가 '일본의 형법개혁', 신동운 교수가 '한국형사사법의 개혁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민법과 관련하여 노미 요시히사 교수가 '신탁법개정과 민법이론에의 영향', 양창수 교수가 '한국법에서의 '외국'의 문제 - 한국민법학 초기의 어떤 모습을 계기로 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잠시 중간휴식을 가진 후 제2세션은 행정법 및 법학교육 분야의 동향과 발전에 대해 김건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정법 분야는 사이토 미코토 교수가 '일본에 있어서 행정법의 신동향과 과제', 박정훈 교수가 '한국의 행정소송법의 최근 동향 -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의 경합을 중심으로 -'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교육 분야는 타카하시 히로시 교수가 '일본의 법학교육', 성낙인 교수가 '한국 법학교육의 최근 동향과 발전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도입 추진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대만 국회 법제국 방한단 본교 방문

4월 11일(화) 대만 국회 법제국의 방한단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법제국 국장 謝英美, 법제관 王元延, 서기관 高百祥, 행정사무관 劉清音





외 주한국 대만대표부 비서조 孫善誠 (통역 동행)으로 구성된 일행은 당시 본교 학장인 성낙인 교수, 당시 본교 학생부학장인 이근관 교수와 양국의 현행 법과교육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양국의 헌법, 법률제도와 운영현황에 대한 대화로 자리를 뜻깊게 하였다.

예일대 로스쿨 Henry E. Smith 교수 강연



지난 5월 11일 목요일 5시 반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 한국 로스쿨의 미래'라는 주제로 Yale 대학교 로스쿨에서 온 Henry E. Smith 교수가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이근관 교수가 미국 로스쿨 진학 및 한국의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법과대학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많은 법과대학 학생 및 타과학생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강연과 질의응답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송지연(법과대학 03학번) 학생이 통역을 맡았다.



Henry E. Smith 교수는 Harvard 대학에서 독문학 학사를 마치고, Stanford 대학에서 독문학 석사,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Yale Law School에서 J.D.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Yale Law School에서 재산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Smith교수는 강연에서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학생들이 진정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학부시절에 주어진다. 점과 학부에서 경제학, 역사학, 심리학 등의 제반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은 뒤에 법학을 배우면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인 각도에서 법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법학은 우리의 삶을 폭넓게 아우르며 다양한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general) 학문이며, 구체적인 법리를 연구하는 구체적인(specific) 학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법조시장이 개방되고 세계 상업유통이 활발해질수록 기업회계, 재무 관련 업무 등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부에서 바로 법학을 배우기보다는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특허 업무를 역시 관련 학문에 대한 수준 있는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관련 법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의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정서에 맞춰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로스쿨의 진학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Smith 교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은 어렵지만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미국 로스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Yale대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인 '실무가(practitioner)가 아닌 학자(scholar) 양성소'는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하며, 단적인 예로 Yale대 로스쿨 졸업생 중 대다수가 실제로 대형로펌에 취업하고, 판사의 clerk로 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근관 교수는 끝에 덧붙여서 호주의 로스쿨 모델을 예로 들면서 현 체제와 로스쿨 체제의 장점들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본 강연은 원래 한 시간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의 계속되는 질문으로 한 시간 반이 넘어서야 끝나서 로스쿨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개소기념 국제학술대회



지난 5월 26일 금요일 롯데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개소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오전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titrust regulator and sector-specific 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 markets)라는 주제에 대해 국내외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본 센터장인 이원우 교수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어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과 본 센터 고문이자 한국공법학회회장, 당시 서울법대 학장인 성낙인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는 독일 University of Hamburg의 Dr. Dr. h. c. mult. Rolf Stober 교수의 기조연설과 제1주제로서 미국 U.C. San Diego의 Dr. Peter Cowhey 교수의 '미국의 경쟁정책이 있어서 중간지대'에 대한 발표가 포함되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2주제로서 영국 University of Hull의 Dr. Mike Feintuch 교수가 '영국에 있어서 통신규제 및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고, 제3주제로 독일의 Bundesnetzagentur의 Helmut Schadow가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는 제4주제로 프랑스의 University of Paris X Nanterre의 Dr. Bertrand du Marais 교수가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프랑스 국참사원의 사법심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본교 이원우 교수의 '한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공익산업법센터는 통신, 방송, 전기, 가스, 난방, 운송 등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익산업(Public utility)에 대하여,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규제가 수반되는 동시에 과거의 국가독점산업에서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는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유효경쟁형성을 위한 특별경쟁정책이 요구됨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할뿐더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번에 기존의 4개 센터에 더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에 개설되었다.



국내학술활동



노동법 연구회 학술회의



2006년 5월 20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노동법과 차별>이란 제하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노동법연구회가 주관하였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유성 명예교수(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는 주제발표시간으로 최윤희 교수(건국대 법대)가 "미국에서의 결과적 차별행위이론에 대한 고찰"을, 김기덕 변호사(금속법률원장)가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과 시정절차 -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법적 문제의 검토"를 발표하였다.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대)가 사회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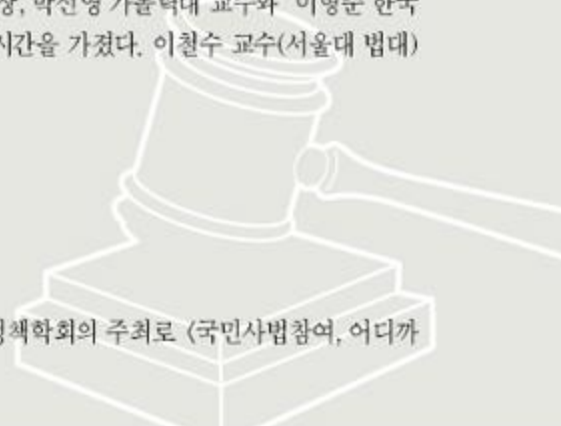


제2부에서는 김엘림 한국방송대 교수, 김인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과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박선영 가톨릭대 교수와 이형준 한국경총 법제팀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회의

지난 2006년 5월 20일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교수기념홀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의 주최로 <국민사법참여, 어디까





지 왔다, 무엇을 해야 하나?란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1985년 11월 5일 창립된 한국형사정책학회의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신동운 교수(서울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수성 명예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본회 명예회장)의 20주년 기념사가 있었다. 그리고 제1부에서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동회 부회장)의 사회로 한상훈 교수(연세대)가 "국민참여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선정 절차의 검토"를, 김현석 부장관(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를 발표하였다. 제2

부에서는 손동권 교수(건국대, 동회 부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이재희 판사(사법연수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설치", 한인섭 교수(서울대)의 "국민참여재판과 경찰역할의 변화"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학술회의



자가 본 법학의 연구와 교육"을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라는 제목에 걸맞게 각 발표에 대하여 사회과학자 한 명과 법학자 한 명이 토론시간을 가졌다. 서울 법대에서는 이우영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학제간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회의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주최로 열렸다. 5월 29일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가 그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법학전공학생들에게는 법학공부의 방향을 시사하였다.

제1부에서는 정종섭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정치학과 김홍우 교수가 "헌법의 시민적 읽기 - 한국 헌법학 반성을 위한 프롤로그"를, 양현아 교수가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을 위해"를 발표하였다. 휴식 후 이어진 제2부에서는 정궁식 교수의 사회로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가 "경제학



통신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필수설비 법리 적용에 대한 연구 워크숍



지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본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통신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필수설비 법리 적용에 대한 연구'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각 2명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이후에는 동원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먼저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인 김권희 변호사가 "독점규제법상 필수설비법리 및 통신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어서 ETRI의 김병관 박사가 "통신시장의 하드웨어에 대한 필수설비이론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본교 구대환 교수가 "통신시장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오승한 연구원이 "통신표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 및 상호접속 규정의 적용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민사법학회 창립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우리 민법학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한국 민사법학 50주년 회고와 전망"

2006년 6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대강당)에서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가 이틀간의 진행을 맡았다.

16일은 양창수 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적인 교수(서울대), 김형배 교수(고려대), 배경숙 교수(인하대), 大村敦志 교수(東京大)의 기조강연이 오전에 있었고, 이른 오후에는 김상용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임미원 교수(한양대), 제철웅 교수(한양대), 권대우 교수(한양대)의 학술 발표 I 이 이루어졌다. 늦은 오후에는 윤대성 교수(창원대)의 사회로 김형석 교수(서울대), 윤철홍 교수(숭실대), 박영복 교수(한국의대), 박정량 교수(순천대)의 학술 발표 II 가 이어졌고, 각 학술발표 뒤에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17일에는 정종후 교수(전남대)의 사회로 김동훈 교수(국민대), 김대정 교수(중앙대),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이은희 교수(충북대)의 학술발표Ⅲ이 진행되었고, 이른 오후에는 강태성 교수(경북대), 김상중 교수(서강대), 신유철 교수(충남대),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박동진 교수(연세대)의 발표로 학술발표Ⅳ가 구성되었다. 늦은 오후에는 이상태 교수(건국대), 윤진수 교수(서울대), 이화숙 교수(연세대), 홍춘의 교수(전북대), 김상용 교수(부산대)의 발표로 학술대회Ⅴ가 진행되었으며, 16일과 마찬가지로 각 학술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루어 졌다. 18시 40분에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인 양창수 교수(서울대)가 "한국 민법학 5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종합보고를 함으로써 이틀에 걸친 학술대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과 한국민사법 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학술대회의 일정 및 강연·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6월 16일 (09:30-20:30)〉

회장 인사말- 양창수 교수(서울대)

기조강연

1. "한국민사법학회 50년의 회고"- 황적인 교수(서울대)
2. "우리 민법학의 미래"- 김형배 교수(고려대)
3.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법"- 배경숙 교수(인하대)
4. "일본에서 본 한국 민법학- 일한비교민법연구서설·재론"- 大村敦志 교수(東京大)

학술발표Ⅰ- 사회: 김상용 교수(연세대)

5.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교수(한양대)
6. "단체와 법안: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相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試論"- 제철웅 교수(한양대)
7. "민법과 소비자보호"- 권대우 교수(한양대)

종합토론Ⅰ

학술발표Ⅱ- 사회: 윤대성 교수(창원대)

8.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우리 점유법의 특성과 문제점"- 김형석 교수(서울대)
9. "부동산등기와 공시"- 윤철홍 교수(숭실대)
10. "인적담보제도의 기능과 과제"- 박영복 교수(한국외대)
11.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박경량 교수(순천대)



종합토론Ⅱ

만찬

〈6월 17일(09:30-20:30)〉

학술발표Ⅲ- 사회: 정종휴 교수(전남대)

12. "계약채결전의 법률관계" - 김동훈 교수(국민대)
13. "채무불이행법체계의 재점검" - 김대정 교수(중앙대)
14.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한 하나의 시론: 대항요건과 성립요건의 교차"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15.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 이은희 교수(충북대)

종합토론Ⅲ

학술발표Ⅳ- 사회: 강태성 교수(경북대)

16. "간접피해자의 보호- 제도의 교차와 경합이라는 관점에서"- 김상중 교수(서강대)
17. "사고와 손해전보체계" - 신유철 교수(충남대)
18. "의료와 생명공학에 대한 의료법학의 성과와 발전- 의료행위와 생명현상에대한 민사법적 접근을중심으로"-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19.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동진 교수(연세대)

종합토론Ⅳ

학술발표Ⅴ- 사회 이상태 교수(건국대)

20. "재산법과 비교한 가족법의 특성" - 윤진수 교수(서울대)
21.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와 신고" - 이화숙 교수(연세대)
22.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 홍춘의 교수(전북대)
23.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류분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용 교수(부산대)

종합토론Ⅴ

종합보고

24. "한국 민법학 5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회장 양창수 교수(서울대)

만찬



교수집담회 및 법과 문화 포럼

법과대학에서는 매주 한 가지 켜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집담회나 법과 문화 포럼을 여는데, 법과대학의 교수나 법과대학 외의 교수, 서울대학교 외의 교수, 사회 인사들이 발표를 맡는다. 이 자리에서는 심도 높고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 각 법학 분야는 물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류	주 제	발 표 자	일 시
2006년 1회 교수집담회	〈조영래 평전〉 출간 전후	안경환 교수	3월 8일
2006년 2회 교수집담회	미술의 겉과 안 - 한국 현대미술의 당면 과제	정영목 교수(서양화가)	3월 15일
2006년 3회 법과 문화 포럼	중국인들의 법률관 - 한중법률분쟁의 오해와 진실	정연호 변호사	3월 22일
2006년 4회 법과 문화 포럼	프랑스 혁명과 인권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	3월 29일
2006년 5회 법과 문화 포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강봉균 교수(생명과학부)	4월 5일
2006년 6회 법과 문화 포럼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한인섭 교수	4월 11일
2006년 7회 법과 문화 포럼	형법 제정과 가인 김병로 선생의 역할	신동운 교수	4월 19일
2006년 8회 법과 문화 포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송호근 교수(사회학과)	4월 26일
2006년 9회 법과 문화 포럼	공소시효의 역사	최병조 교수	5월 3일
2006년 10회 법과 문화 포럼	도시의 생명력, Green Way	김기호 교수(환경대학원)	5월 10일
2006년 11회 법과 문화 포럼	Two Conceptions of Property in Law and Economics	Prof. Henry Smith (Yale Law School)	5월 17일
2006년 12회 법과 문화 포럼	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과학, 법 그리고 사회	서이종 교수(사회학과)	5월 24일
2006년 13회 법과 문화 포럼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制度の發足と現状	伊藤 眞 교수	6월 1일
2006년 14회 법과 문화 포럼	전통적 가족제도와 헌법	윤진수 교수	6월 7일



구대환 /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이 책은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 오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국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나라들은 지원받는 시혜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일시적일뿐이다. 하지만 법제정비를 지원하면 궁극적으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에 관한 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정비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담고 있다.

남효순, 김재형 / 『統合倒産法』

법문사, 200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5년도 2학기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로 「통합도산법」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책은 통합도산법 과정의 강의원고를 기초로 하여 「서울대학교 法科大学 専門分野研究課程 法學叢書」의 하나로 발간하는 것으로, 2005년 5월에 발간된 「倒産法講義」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도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 특히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도산절차의 진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인제도, 채권자회의제도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부인권제도,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계획과 M&A 등에 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개인회생제도, 국제도산제도도 다루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실무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실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산법에 영향을 끼친 미국 파산법과 통합도산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도 다룸으로서 통합도산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인접 법영역과 관련된 주요 주제도 다루었다.

남효순, 정상조 / 『인터넷과 법률 II』

법문사, 2006.5.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연구과정 법학총서」 시리즈의 하나인 〈인터넷과 법률 II〉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지난 2001년도 2학기 '인터넷과 법률'의 후속과정으로 2005년도 1학기에 개설했던 전문분야연구과정 제 19기 '인터넷과 법률 II'의 강의자료를 발전시킨 것이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확충으로 인해 제기되는 재판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터넷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헌법, 형사법, 민사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과 법률 I〉의 주제들을 심화시키거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성폭력, 온라인 음악산업, 전자금융거래법안 등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박정훈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 연구1)>에 이어, 그 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연구논집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취소소송의 4유형, 취소소송의 실질과 처분개념 그리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송물 등이 담고 있다.

성낙인 / 『헌법학 제6판』

법문사



이 책은 지난 2001년에 초판을 간행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여 제6판에 이르렀다. 제6판에서는 선거와 정당론, 제도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회의원의 특권, 지방자치 등을 전면적으로 개고하였다. 또한 그간의 새로운 헌법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제·개정된 법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판례를 반영하였다.

신동운 / 『판례분석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11. 25



‘판례분석 형사소송법’은 2005년 10월에 출간된 신동운의 ‘형사소송법’ 제3판의 자매편이다. 이 책은 지면관계상 ‘형사소송법’ 중에서 판례소개 부분을 별권으로 처리한 것이다. 신동운 교수는 그동안 한국 형사소송법학의 토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신간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긴 판결문장을 가능한 한 단문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소재목을 달고,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를 보기 편하게 재정리 하는 등 가독성(可讀性)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일반시민 및 초학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복잡한 법률적 표현을 최대한 생략하였다.



신동운 / 『형법총론』

법문사, 2006. 5. 15



초판이 출간된지 5년만에 신동운 교수의 '형법총론'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판에서는 그동안 형법전에서 최수론 부분 조문의 주요개정과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치료감호법의 실시 등 형사제재제도 전반의 큰 변화들과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들을 새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한국 형법의 정체성과 입법자들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발굴된 입법자료들을 통해 확인된 우리 입법자의 구상도 반영하였다. 예컨대 독일형법과 한국형법의 조문대비표, 형법총칙의 조문을 성안하였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관련논문, 형법각칙의 조문을 성안하였던 효당 임상섭 선생의 관련 논문 등이다.

안경환 / 『조영래 평전-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열정』

도서출판 강



1990년 마흔셋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뜬 조영래 변호사. 그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에피셋이 있다. '인권변호사.' 하나가 더 있다. '전태일 평전의 숨은 저자.' 조영래를 우리 시대의 공동 기억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형용어구 속에 그의 짧은 삶이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만큼 조영래의 생애는 4.19로 시작된 60년대부터 겨울공화국의 70년대를 거쳐 광주민주화항쟁으로 타오른 80년대까지,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알린 90년대 초입까지 절곡과 격랑의 한국 현대사를 한복판에서 가로지르며 내달린 열정의 그것이었다. 조영래의 대학교 1년 후배인 서울대 법대의 안경환 교수가 5년여의 준비 끝에 펴내는 <조영래 평전-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열정>은 조영래 사후에 나오는 최초의 평전이다.

양창수 / 『민법연구 제8권』

박영사



양창수 교수의 민법연구 8권이 새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03년 말 이래로 발표한 글을 모은 것이다. 민법전 제정과정, 사생활 비밀, 민법 제 102조 제 1항 천연과실 귀속, '유류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 규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일부배당이 후행절차상의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등에 대해 고찰한 글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1999년 이래 양창수 교수가 관여한 민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쓴 글과 2003년 이래 일부 민사제관례에 대해 쓴 개관도 실려 있으며, 이번에는 민법전 제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附錄으로 따로 붙이기도 했다.



양창수 / 『민법산책』

박영사



이 책은 1998년에 출간된 '민법산고'(同 저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나 그와 관련된 '생각의 斷片'을 그 때마다의 필요에 응하여 써 본 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우리 법 풍토에서는 드문 '非主流的' 읽을거리이다. 그리하여 '통일 후 이산가족의 재산권 문제', '담보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방향', '子의 이름에 대하여'와 같은 글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사람의 부동산 취득 확보 방안 등', '저당권의 상속과 혼동으로 인한 소멸'과 같이 고시잡지에 발표된 글로 종전에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민법의 구체적 개별문제를 조명한 글, 그리고 '예령의 사비나 추도문', '법치주의의 저편', '21세기의 변호사에 바란다' 등과 같은 수필도 담겨져 있다.

양창수 편역 / 『독일민법학논문선』

박영사



양창수 교수가 번역한 독일민법학 관련 논문집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외국의 법 개념 등을 지나치게 '완제품으로서 수입적용'하려는 일부의 경향을 비판하며, 비교법학의 관점에서 진정한 외국법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 나름의 문제시각을 가져야한다는 취지에서 번역된 것이다. 그리하여 단지 유명한 학자의 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어야 할 법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시각과 방향을 주는 논문들을 번역한 것이다. 사비나의 '현대 로마법체계' 서언, 예령의 '다시 지상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마르케시니스의 비교법학자의 파괴적 역할과 건설적 역할, 츠바이게르트/코츠의 '독일사법(私法)의 역사', 라렌츠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의 양도', 크뢰셀의 '게르만적' 소유권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등의 글이 실려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현재 강의 중인 라이너 프랑크 교수의 '친권법의 기본문제'를 김상용 교수와 양창수 교수가 함께 공역한 글도 실려있다.

양창수 / 『2005년판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박영사



양창수 교수의 '독일민법전'이 2005년판으로 새로이 출간되었다. '독일민법전'은 원래 1998년에 독일의 민법전에서 총칙·채권·물권 편을 번역·출간한 것으로, 그 뒤 2002년에 개정법을 반영하여 다시 출간했다가, 이번에 '2005년판 독일민법전'을 새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 민법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민법전의 번역본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간한 것이라 더욱 의의를 가진다. 독일민법 중에서 총칙·채권·물권의 3편에 대한 개정은 그동안 8차례에 이르는데, 특히 최근 3년간의 개정(2005년 기준)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 규정들을 번역한 것이다.



정궁식 / 『한국고문서학회 지음/조선시대 생활사3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한국고문서학회와 역사비평사가 기획한 '조선시대 생활사'의 3번째 책이다. 이번에는 의식주를 통해 조선시대의 삶을 복원해냈다. 이 책을 펴낸 한국고문서학회는 사회사·경제사·법제사 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인 곳으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법제사를 연구하는 법대 정궁식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정종섭 / 『헌법학원론』, 『헌법재판강의 제3판』, 『객관식 헌법』,

박영사



정종섭 교수는 세권의 책을 새로 발간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교과서 형식의 책, '헌법학원론'과 변경된 법률과 새로운 관례를 반영하는 체제를 대폭 수정한 '헌법재판강의 제3판', 그리고 수험생들의 깊이있는 헌법이해를 돕기 위한 '객관식 헌법'이 그것이다.

그 중 특히 '헌법학원론'의 발간이 주목된다. 정교수는 그동안 '헌법연구' 시리즈, '헌법재판연구' 시리즈, '헌법소송법' 등을 통해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이 중심이 되는 헌법공부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저술활동이 수험사위주의 법학풍토와 실정법해석중심의 법학풍토를 극복하고자 한 의도였다면, 이번 '헌법학원론'의 출간은 헌법의 규범학적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교수는, '기존의 나의 헌법학연구에서 때로는 정치학의 연구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사회학적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도 있었지만,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 내는 작업이었다.'며 이번 헌법학원론 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4



법치의 이념은 어느 특정한 사상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어서 법치의 목적, 기능, 구성원리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법치 또는 법의 지배 사상이 동서양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법치이념의 공통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김도균 교수의 논문은 법치이념의 일반론을 다루고 있고, 또한 현대 법치론의 사상적 기초가 서양 근대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최병조 교수의 논문은 고대 로마법질서에서의 법치이념과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고 교수는 한국에서 법치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천착하고 있다.



최종고 / 『자유와 정의의 지성-유기천』

한울출판사, 2006.6



고(故)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는 서울대 9대 총장(1965.8-1966.11)을 역임하였으며, 1946년부터 1971년까지 25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형법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동경제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지일파였던 유 전 총장은 1960년대 한·일 회담 반대가 지식인과 대학가를 풍미하던 당시, '어용총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역설하였으며, 대학의 자유를 수호하려 분투했으나 결국 좌절하고 이내 총장직을 사임하였으며,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 책에는 신변 위협을 느낀 그가 동대문경찰서에 권총소지 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쌍권총 총장'이라고 언론이 과장 보도한 뒷얘기도 담겨 있으며, 망명생활 중에 여류시인 모운숙 씨에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 1973년의 최종길 교수 사건 증언에 관한 이야기, 1987년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 후보 단일화를 권고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책의 뒷부분에는 유기천 교수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다.

한인섭 /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이 저작에서 한인섭 교수는 근대감옥 탄생의 배경에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통제를 위해 감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감옥의 변화의 도상에서 어떤 개선의 논의가 있어왔고 현재의 감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경험은 물론 다사다난한 한국현대사에서 감옥이 수행했던 작지 않은 역할에 주목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감옥을 통한 사회통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1부는 근대감옥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2부는 현대 행형의 실제에 대해 스웨덴과 미국의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호문혁 /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저자는 이번 신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여러 곳을 수정하고, 민사소송의 목적, 중서 진부확인 의 소,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 소송담당, 소송능력 과 대리권, 임의적 환송, 상고이유, 기관력이 생기는 판단, 선택적병합, 예비적공동소송, 판결의 누락 등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충하거나 고쳤다.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국내 유일

의 법과대학 주체 최고지도자 과정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Advanced Law Program)이 어느덧 4기를 맞이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알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과 사회갈등 조절의 국가경영을 법의 지배에 터잡아 이루어낼 것을 목표로 지난 2004년 개설된 최고지도자과정은 지난 2년동안 경제, 정치, 사회, 법조 등 여러분야의 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 특히 최고지도자과정은 평소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간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초 3기 수강생이 졸업하고, 이어 새롭게 시작된 4기 역시 정치, 법조, 기업, 언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지도자들이 참가해 그 풍성함을 더했다. 6개월 동안 총 68강좌가 마련되는 최고지도자과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데,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때면 강좌주제를 달리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전략>, <국가 경영과 현대 사법>, <한국경제와 법의 지배>,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과 법> 등 크게 4분야로 이루어진 교과과정은 법에 기초한 사회 현안분석이라는 큰 틀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또한 법학 강의 외에 한달의 한 번 부부특강이 있고, 과정 중간중간에 수강생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는 법과대학의 최고지도자과정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상호소통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다.

수업은 그 강좌주제에 맞는 법과대학 교수와 전문이론가를 한분씩 초빙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수 구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과정

ALP는 지난해에 법과대학사상 최초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전문가과정으로, 법과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최고지도자 과정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성은 현실과 이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훌륭한 외부강사 초빙으로 유명하다. 이번 4기에도 이강국 대법관,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 송광수 전 검찰총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영관 서울대 의과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도움을 주셨다.

6개월간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은 논문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종강하게 되고, 수료생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는 물론, 이후 법과대학이나 부속연구소의 각종 세미나 및 포럼에 우선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여러 현안들은 살펴본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지배나 단기적인 효율추구를 넘어 균형잡힌 시각으로 법의 지배에 의한 사회체제의 장기적 효율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서울법대의 명성과 역량에 기반하여 각계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법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창조의 비전을 제공하고자 개설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모습이 주목된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법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연혁은 다음과 같다.



기수	연도/학기	과 정	기수	연도/학기	과 정
1	1996/1	공정거래법	2	1996/2	지적재산권법
3	1997/1	공정거래법	4	1997/2	금융거래법
5	1998/1	조 세 법	6	1998/2	보 험 법
7	1999/1	행정소송·행정법	8	1999/2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9	2000/1	공정거래법	10	2000/2	금융거래법
11	2001/1	노동 법	12	2001/2	인터넷과 법률
13	2002/1	공정거래법	14	2002/2	기업의 경쟁·도산과 법
15	2003/1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16	2003/2	국제통상법·정책과 실무
17	2004/1	공정거래법	18	2004/2	조 세 법
19	2005/1	인터넷과 법률 II	20	2005/2	통합도산법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1기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전문분야법학과정 제21기는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권오승 교수와 이원우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3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교시로 나누어 한 시간 반 정도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분야법학과정 제21기는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권오승 교수와 이원우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3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교시로 나누어 한 시간 반 정도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간에 블록세미나도 가졌으며, 6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유럽을 방문하여 경쟁법 집행기구와 규제당국을 방문하여 유럽의 경쟁법을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6월 24일에 권오승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대 제섭팀 세계국제법모의재판대회서 21위 달성



국제전 예선 마지막 경기인 Canada와의 경기를
마치고 Canada팀과 함께

서울대학교 제섭

팀이 2006년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 50회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이하 제섭)에서 본선(24강) 진출 및 21위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다. 지난 2월 23일 고려대와 한동 로스쿨이 참가한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압승을 거두고, 국제대회에 참가한 서울대 Jessup 12기는 팀장 송지연(03), 박준호(05), 신지원(05), 임아영(05) 등 4명이었다.

제섭은 세계적인 학술모임인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ASIL) 행사의 일환으로 International Law Student Association(ILSA)에서 주최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로서, 세계 모의재판대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이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3년간 계속 본선진출 및 작년에는 16강 진출도 기록하였는데, 갈수록 대회 규모가 커져서 올해는 90개국의 총 120개 대표팀이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4강 진출 또한 대단한 성

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국내전을 통해 선발된 팀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각각 내개의 팀과 예선을 한 다음 예선성적으로 24강에 출전할 팀이 정해지고, 24강 이후부터 토너먼트식으로 16강, 8강, 준결승, 결승까지 이어진다. 서울대 제섭팀은 Canada, Netherlands, Croatia, Azerbaijan과의 예선전을 치렀고, 24강에 진출하여 India와의 경기에서 패함으로써 경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대회의 사안은 "개발도상국과 다국적 석유기업의 합작회사에 의해 발생한 소수민족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느 국가(개발국 v. 다국적기업의 본점소재국)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버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석유개발국에서 다국적기업이 개발국의 정부와 합작하여 석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들의 인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작년 5월에 모집된 이후 제섭팀은 3월말 대회가 있기까지 바빠 달려왔다고 한다. 우선, 여름방학 내내 기본국제법을 배우고, 9월 중순에 사안이 나오자마자 리서치 및 사안분석에 들어갔다. 학기 중에도 국제법 관련 논문 및 판례를 읽으며 공부를 했고, 겨울방학에는 15동 519호에 상주하면서, 서면 변론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2월과 3월은 국내전과 국제전을 위해 제섭 선배들의 지도 하에 하루에도 몇번씩 구두변론연습을 하였다.

제섭팀 12기는 대회 준비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상면, 정인섭, 이근관 교수 등 국제법 교수 및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했던 공무수탁사인, 회사의 법인격부인 주제와 관련하여 이원우 교수와 송옥렬 교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기수를 넘어선 제섭 선배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팀원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팀장 송지연(03)씨는 "제섭활동은 배경, 동기, 지식 및 실력이 너무 다른 네 사람이 모여서 1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같이 달려가는 과정이다. 혼자서 생소한 공부만을 하기에 힘든 과정을 4명과 호흡을 맞추어가며 해내기 위해선 팀원들 간의 이해와 돈독한 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12기는 그런 면에서 참 조화를 잘 이룬 팀이었던 것 같다. 국제전에서 우리 네 명 모두 각자의 이름이 아닌 Korea로 불릴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한 가시적인 대회의 결과보다도 지난 10개월 간 수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깊어진 생각의 폭과 팀원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하면서 늘게 된 논리적 사고력은 제섭을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고 했다.



*대동제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법대 봄 대동제가 열렸다. 지금까지의 축제는 학생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대동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법대 축제는 진정한 대동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축제 두 번째 날인 17일에는 많은 법대인들이 정의의 광장(이하 정광)으로 나와 축제를 즐겼다. 이를 지켜 본 한 학부생(00학번)은 "입학 이후 정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번 법대 대동제는 축제 기간 중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 엄선된 명작들과 함께하는 화요일



축제시작 전부터 법대 매점 앞, 15동 복도 등 곳곳에 영화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일 영화제의 개막과 함께 법대 대동제가 시작되었다. <이터널 선샤인(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21그램(21 Grams)>과 <몽상가들(The Dreamers)>이 주산홀 대강당에서 상영되었다. 특히 4시 영화였던 <이터널 선샤인>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2. 육주가무(肉酒歌舞)의 수요일

둘째 날은 이번 대동제의 하이라이트로 많은 행사가 준비되었다. 정광의 한 쪽(자하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하루 종일 C반 1조의 장터가 열렸고, 그 반대편(100주년 기념관 아래)에는 공연을 위한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었다. 법대 락밴드 '베루카'의 흥겨운 무대에 이어 <법대 노래자랑>이 시작되었다. 12개 팀이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였다.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의 의도는 교수, 교직원 모두가 어우러진 노래대회였으나 아쉽게도 학생들만 참여하였다. 하지만 노래자랑은 법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법대인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노래자랑을 지켜보았다. 노래자랑 중간에는 노래패 '동백', 풍물패 '질풍'과 'Triple-H'가 공연하였고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동아리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작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이다. 법대 학생회의 출범식인 해오름제 역시 이 때 열렸다. 노래자랑에서는 두리목학회의 김이솔학우가 세븐의 '와썹'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학우들의 폭발적인 폭소를 자아내 '재미'라는 축제의 목적에 부합했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평가이다. C반 1조 우희성, 오동훈 학우가 2위, C반 2조 이성민 학우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노래자랑이 끝나자, 정광에 하얀색의 테이블이 여러 개 놓였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생맥주·바비큐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그 전부터 붐볐던 정광의 인파는 이 때 절정에 달하였다. 맛있는 바비큐와 야채(오이, 당근 등),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가 법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 이날 준비된 음식은 맥주 14만cc와 바비큐 200인분(1인분 1kg). 하지만 고기는 1시간 안에, 맥주는 1시간 반 안에 떨어졌고, 늦게 온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당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정광에서 일행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음식이 금방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대인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과 즐거움에 불만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법대 학생회장 박종하 학우는 본지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축제의 목표는 많은 학우들이 오고, 즐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이 학우들의 노래와 평소 생각하기 힘든 먹을거리였습니다. 정광에서 바비큐를 먹는 것은 잘

생각하기도 힘들고, 독특한 경험이지요. 함께 모여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법대 구성원 간 화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3. 로스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목요일

법과대학 학생회 주최 로스쿨 강연회

지난 5월 18일(목) 오후 5시 반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와 본교 송옥렬 교수가 도입을 앞둔 로스쿨 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과대학 학생회가 대동제의 일환으로 주최한 본 강연회는 로스쿨의 현실적 도입여부와 구체적 형태, 나아가 법과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로스쿨을 둘러싼 학생들의 궁금증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송옥렬 교수는 미국 로스쿨 제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한상희 교수가 로스쿨 법안의 추진현황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로스쿨 법안은 합의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정책들에 밀려 국회 내에서 소위원회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예비작업은 상당부분 진척을 보여 시행령 등 세부규정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적성시험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표준교육안과 표준교육과제이 올해 안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난 5월 2일에는 공청회로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고 했다.



이렇듯 로스쿨은 개교준비를 완료해가는 반면 법학부를 폐지해야 하는 각 대학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올해 7월까지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 2008년에 로스쿨을 개교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적어도 3학기 전에 대학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로스쿨을 설치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서도 아직 법조계와 학계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 법조계가 지닌 병폐의 원인이 사법고시에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과거 1960년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이 로스쿨의 기능을 맡았던 바 있으나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제도가 시작되면서 시민사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모든 법조지망자에게 획일적 교육을 실시하는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의 목적은 관료체제를 벗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법학교육에 국가 관료 지위에 있는 기존 법조인이 깊이 관여하면 교육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서 학생회가 미리 수집한 질문들과 학생들이 즉석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법과대학생으로서의 진로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학생들은 로스쿨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어떤 기준으로 대학에 로스쿨이 배정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총 정원에 달린 문제이나 지역안배가 중시될 것이며 서울과 지방에 반분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학비는 현 대학원생 학비의 120~150% 가량으로 상승할 것이며 경제적 진입장벽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나, 총 학생의 20%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ROTC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대학동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대학교의 독식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송옥렬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일원화와 밀접하게 전개되면서 법조계 내부의 서열화를 타개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 측은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임하는 방식에 회의적어서 법조입문자 중에서 충원하는 방향을 지속하고자 법원 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로스쿨 졸업생의 전문적 자질 확보 방안으로 송 교수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형태의 로스쿨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는 고도의 법학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로스쿨은 기본적 역량을 길러줄 뿐 로펌이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들도 있었다.

사법고시에 학벌주의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한 교수는 사법고시로 소위 '신분상승'한 소수의 뒤에는 가정과 주위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제도의 개선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입학이 또다른 사법고시처럼 작용하여 학부교육 마비의 병폐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송 교수는 로스쿨의 '출구'를 통제하면 법학교육이 형해화되며 '입구'를 통제하면 학부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나 적어도 사법고시 인원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방청하던 박정훈 법과대학 학장대행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 사법연수원과 교육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당장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나, 로스쿨 도입의 핵심은 사법시험의 폐지와 그에 기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제 전환에 있다는 데 두 교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 시간 반에 걸친 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이은 질문으로 큰 호응을 보였으며 강연자들은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당초 예상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소강당을 반 정도 메웠으나 참석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때, '서울대 축제 가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 축제는 학우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리고 법대 축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법대인들이 원래부터 축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축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대 학생회장의 말대로, 법대생들의 대학생활은 전반적으로 과편화되고, 혼자만의 생활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우들이 모이는 자리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축제기간 동안 1,2학년뿐만 아니라 3,4학년, 그리고 5학년 이상의 고학번들도 정광에 나와서 축제를 즐겼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대 대동제는 성공적이었다. 다만, 일반 학우들의 참여 없이 학생회집행부원들만이 축제를 준비한 점, 교수·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음 대동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문인터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正義



권오승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50년 생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권오승 위원장은 1973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2년 공정거래연구소 연구위원, 2004년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2005년 제4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본지에서는 5월 30일 오후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오승 위원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위한 커다란 원탁이 우리를 주눅 들게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곧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기자 : 바쁘신 일정에도 선뜻 시간을 내주신 권오승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2010년대 선진경제로 진입해야 할 한국경제의 현좌표를 감안할 때 제가 공정위를 이끌고 가야 할 시기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자 : 그렇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집무를 시작하시면서 느끼신 감회가 어떻습니까? 집무에 있어서 부담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 저는 공정거래분야를 평생 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평소부터 공정위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왔고, 우리 직원들과 공정위의 비전과 시대적 소명, 당면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

꾼으로서 제가 바깥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위원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중요한 때 위원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랜기간 연구와 강의를 통해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 우리 공정거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달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 직원들과 합심하여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기자 :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분야와 그에 관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 취임 후 세달 동안 공정위 업무의 전반을 파악하면서, 오랫동안 공정거래법,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고민해 오던 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선, 그때그때 시장상황의 필요에 따라 개편되었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장경제의 근본규범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시장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고, 경쟁질서 하나만은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친경쟁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경쟁 기능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피해가야만 하는 '지뢰밭'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경쟁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쟁주창활동을 전개하여 경쟁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공정거래법이 피해가야만 하는 '지뢰밭'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중앙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네, 적절한 비유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학생들은 경제법은 쉬운 것 같지만, 알아갈수록 어려운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서 연구와 강의를 하실 때의 경제법과 공정거래위원장님으로서 경제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위원장 : 경제법, 즉 공정거래규범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체계입니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정거래규범의 기본적인 성격은 학자 입장에서나 공정위 위원장 입장에서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 규범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면, 실제 법운용을 담당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현실에 접목되는 과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입장에서 복잡다기하게 변화하는 경제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법을 어떻게 선진화해 나가고,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자 : 다수의 법과대학 학생들이 장래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특히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도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며, 대학시절에는 어떤 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 공정거래법 분야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엄밀한 규범적 검토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범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과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학 교육과정은 주로 규범적 검토를 위한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래 공정거래분야를 희망하는 법학도라면 법학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경제학 분야의 소양과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법학도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경제의 비전을 감안 할 때 이 분야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학창시절부터 키워 가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셨는데 그동안 법과대학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시고,



화도 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비추어 법조인으로 법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 법학은 한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기본질서인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 사회의 시대정신을 읽을 줄 알고, 시대정신의 변화에도 예민한 사람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국가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넓은 비전이 없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만을 좇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법서에만 파묻혀 있는 학생이 훌륭한 법학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폭넓은 직·간접적인 경험과 독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될 때 기능인으로서의 법조인이 아닌,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 스스로도 많은 반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서울법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훌륭한 선배들도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 걸맞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사회와 민족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이끌어 나갈 시기를 대비해서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에 충실해 나가면서도 대학생활에서 폭넓은 경험과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부심이 지나쳐 오만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대환 교수

구대환 교수는 6월부터 3개월간 일본 IIP(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에 국외 학자로 초청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본과 다른 나라의 비교연구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다. 구대환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 학자들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동 연구를 하며, IIP에서 강연 등을 가질 예정이다.



박정훈 교수

박정훈 교수는 2006년 3월 2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제1회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교육상 수상자로는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7인의 교수가 선정되었다.



성낙인 교수

성낙인 교수는 법과대학의 학장으로 재임중인 200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경대학대학원법학정치연구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의 지원으로 401호, 301호 강의실을 리모델링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지원으로 모의법정을 개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낙인 교수는 지난 5월에는 한국법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0년 6월에는 한국공법학회 26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송상현 교수

1. 국제형사재판관 재선

현재 상설 국제형사재판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재임 중인 법과대학 송상현 교수가 지난 1월 26일(현지시각)에 9년 임기의 ICC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송 교수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송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래 대륙법 계통을 택하고 있고 나는 영미법을 전공해 양쪽 법체계에 익숙하다"며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이 충돌할 경우 나름의 조정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점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 5월 16일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수상

지난 5월 16일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법과대학 송상현 교수가 법과대학 동창회에 의해 제14회 서울법대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법과대학 동창회는 송상현 교수가 한국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여러 대학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하였고, 80년대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각종 정부 및 민간 협상에 참가하였으며, 국제거래법학회, 한국지적소유권학회 등을 창립하는 한편, 초대 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으로 당선되고 이번에 연임 당선되어 한국법학계의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신동운 교수

신동운 교수는 지난 2005년 12월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년 11월 5일에 서울대학교 이수성 교수를 주축으로 창립되었으며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신동운 교수는 '형사사법의 개혁, 시민참여재판의 도입,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형사정책의 전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을 직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걸맞는 과학적 형사정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면 교수

이상면 교수는 2006.3.25-4.1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섭(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에 한국대표단(서울대 법대 팀)을 인솔하고 참가하여 예년과 같이 준결승 심판을 하였다. 우리나라 제섭팀은 송지연<법3>, 박준호<법2>, 신지원<법2>, 임아영<법2>였고, 성적은 예년과 비슷하게 지역예선을 거친 1백 팀 가운데 전적 21위, 성적 17위를 달성하여 비영어권 팀 가운데서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다.

이상면 교수는 2006.4.28-5.2 국립 대만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립법규와 그 실제>라는 제목으로 40분간 중국어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어서, 국립정치대학, 국립대만해양대학에서 <동북아의 해양문제> <동북아의 영토문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으며, 대만중앙텔레비전에서 마련한 <동북아 국제정세>에 관한 단독 특별대담에 한 시간 출연하였다.



이원우 교수

이원우 교수는 지난 5월말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 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공익산업법센터 개소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철수 교수

이철수 교수는 2005년 말 개성법률 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해 개성공업 지구의 법제 정비에 기여했고, 2006년도 들어서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노동분야 자문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인섭 교수

정인섭 교수가 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사업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국립연구기관이다.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법학)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국 교수

강의, 강연

1. 2006.2.23,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의 Lawrence Mayali 교수의 <Asian Law Seminar> 초청 강의
2. 2006.3.1,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초청 강의
3. 2006.4.7, Harvard-Yenching Institute 주최 <Friday Forum> 주제 발표
4. 2006.5.5,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주최 <The Politics of Memory in Modern Korea Workshop> 주제 발표

논문 저술

The Ongoing Reconstruction of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Issue 2 (2005).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지난 연말 일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했다. 2005.12.10,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법과대학원의 초청으로 "한국의 법조인 양성과 선발 제도"에 관한 특강을 했고, 뒤이어 2005. 12. 12, 일본 도쿄의 게이오대학 법과대학원에서 "각종 분쟁해결방법 체계의 정립 필요성"과 "개정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한편, 호교수는 지난 2006. 3. 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6. 3. 18,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에서 한일 민사소송법 공동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 실현을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 연구 환경 및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 위 :		
전 화 번 호	자택 : 휴대전화 :	직 장 : e-mail :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문 ☐ 학부모 ☐ 법인/단체 ☐ 기타	입학년도 : 학생성명 : 대표자성명 :	입학년도 :

약정금액	일금	원 (₩)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 지로입금	신한 서울대지점 873-03-005786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 자동이체(CMS)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부기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납부
참여내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